

영국 식민 진출 이후 미얀마 화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조 흥 국**

I. 서론

미얀마는 대부분의 외부 관찰자들에게 “은둔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동남아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 이 나라는 1962년에 네 윈(Ne Win) 정부가 이른 바 “버마식 사회주의(Burmese Way to Socialism)”를 표방함으로써 자의에 의한 폐쇄주의를 택했다. 이후 군부 독재체제 하에서 미얀마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억압당했고,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1988년에 학생들이 중심이 된 반정부 시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었다. 격렬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한 네 윈의 지배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를 잔인하게 진압한 후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찌(Aung San Su Kyi)가 이끄는 민족민주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압도적인 승리를 획득했지만, 이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군부는 독재정권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군부의 반민주적 국가 운영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미얀마에 대해 무역과 원조 등의 분야에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여,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4년과제)에 의한 연구임.

**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교수

이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켰다.

이 “은둔의 나라” 미얀마와 중국 사이에 1980년대 말부터 긴밀한 무역 관계가 전개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 투자유지 정책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또한 1997년에는 미얀마가 아세안(ASEAN)에 가입함으로써 동남아 국가들과 미얀마 사이에 경제적 접촉이 활발해졌다. 이로써 미얀마의 군부 정권은 서방의 경제적 제재와 고립화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얀마의 화인(華人)에 대한 연구이다. 이 글에서 ‘화인’은 중국의 한족(漢族) 출신으로 미얀마에 이주하여 정착한 중국인이거나 그 후예로서 국적을 취득하여 미얀마인¹⁾이 되어 있지만 한족의 언어와 풍습 등을 유지하고 있는 소위 ‘화인(華人)’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족 출신으로 미얀마에 살고 있지만 귀화하지 않은 소위 ‘화교(華僑)’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미얀마의 화인사회는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의 화인사회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첫째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의 영국 식민 시대에 수적으로나 경제적인 활동 면에서 인도인들에 비해 열세였던 미얀마의 화인들은 동남아 국가들의 여러 화인사회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소수민족이 되지 못한 유일한 경우였다. 둘째 미얀마의 화인사회는 바다를 통해 들어와 정착한 이른 바 해로화인(海路華人) 외에도 중국 윈난(雲南)성을 통해 들어온 이른 바 육로화인(陸路華人)으로 구성되어 있다.²⁾ 육로화인의 존재는 태국과 라오스와 베트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미얀마의 육로화인은 이 세 나라들의 경우와는 달리 수 세기 전부터 화인사회에서 중요한

1) 이 글에서 ‘미얀마인’은 미얀마 국민을 지칭하는 정치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에 비해 ‘버마인’은 미얀마의 다수민족인 버마족을 가리키는 문화적 개념이다.

2) 퍼셀(Purcell 1965: 46)은 이를 각각 “Maritime Chinese”와 “Mountain Chinese”라고 지칭한다.

역할을 해왔다. 게다가 태국과 베트남의 육로화인은 그 수적인 규모나 경제적 활동 면에서 해로화인들의 그것에 비해 미약하다. 라오스에 오늘날 많은 육로화인들이 라오스 북부를 중심으로 경제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지만, 그것은 1980년대 이후의 발전일 뿐이다. 미얀마 육로화인들의 그같은 측면은 한편으로는 중국과 2,000km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에 걸친 양국간의 빈번한 접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19세기 중엽 이후 미얀마의 역사에서 화인들의 이주와 경제적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최근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 진전과 그 관계가 미얀마의 화인사회 형성과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19세기 중엽은 미얀마에 대한 영국의 식민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 시기 이후 미얀마 화인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그들의 경제적 활동의 구조가 근대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 이후 미얀마 화인사회에 대한 연구가 의미를 갖는 것은 19세기 중엽 이후 영국 식민 시대가 현대 미얀마의 화인사회 형성의 직접적인 배경을 이루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무하며, 해외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盧偉林 1988; 賀聖達 1993; Purcell 1965; Chen Yi-Sein 1976; Mya Maung 1994; Mya Than 1997). 미얀마 화인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행할 것으로 보이는 미얀마의 경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화인들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루는 미얀마와 중국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점은 미얀마에 대해 경제적으로 접근하려는 한국의 투자자들에게와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한국 정부에게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II. 영국의 하부 미얀마 진출 및 식민지배 시대 (1850년대 중엽-1948년)

1. 인구학적 변화와 발전

미얀마의 화인사회는 19세기 전반의 전통 왕국 시대까지는 비록 중국의 윈난 지방과 미얀마 사이에 일어난 전쟁과 교역 관계 그리고 중국 상선들의 미얀마 남부 항구들에 대한 간헐적인 방문 등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해 왔지만 작은 규모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화인사회가 1850년대 이후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첫째 1850년대 이후 하부 미얀마³⁾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무역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했다는 점, 둘째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중국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불안했으며 경제적으로 피폐해 있었다는 점 등의 대내외적 요인이 있다. 그밖에 특히 북부 및 동북부 미얀마의 육로화인의 수적 증가와 관련하여 19세기 중엽 판타이(Panthay) 반란도 중요한 배경을 이룬다.

미얀마 동북부의 육로화인 숫자는 19세기 중엽 윈난 지방을 휩쓸었던 판타이 반란으로 증가했다. ‘판타이’란 용어의 기원은 확실치 않다. 9세기 초에 중국 조정의 요청에 따라 티베트에서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온 무슬림 군대의 일부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윈난 지방에 남았다. 13세기의 원(元)나라 시대에는 쿠빌라이 칸(Kubilai Khan)의 아랍 및 타타르(Tartar) 군사들 중 일부가 윈난 지방에 남아 군사적 및 행정적 임무를 수행했다. 이 지역의 무슬림들은 13세기

3) ‘하부 미얀마(Lower Burma)’는 영국인들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1886년 전까지는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남부 미얀마의 모든 영토를 가리켰고, 그 이후에는 당시 식민지 시대 지방행정 체제에 따라 에야워디(Ayeyarwady) 델타, 버고(Bago), 띠닝따이(Tanintharyi), 여카잉(Rakhine) 등 네 개의 주를 포함하는 영토를 지칭했다(Bečka 1995: 127).

후반 미얀마에 대한 원나라의 군사적인 공격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전반에는 산시(山西)성과 간쑤(甘肅)성으로부터 많은 무슬림들이 윈난 지방으로 이주해 왔다. 중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이처럼 윈난 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한 무슬림들의 후예를 판타이라고 지칭한다(Yegar 1966: 73-74).

윈난의 판타이들은 1855년에 중국 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 대리(大理)에 수도를 둔 독립 왕국을 건설했다(Evans 1985: 117). 1873년에 진압되기까지 지속된 반란의 와중에서 수만 명의 판타이들이 죽었으며, 많은 생존자들이 미얀마의 샨(Shan) 주로 건너와 피신했다. 이들은 주로 중국과의 국경에 가까운 꼬깡(Kokang) 남쪽의 호빵(Hopang) 및 뽕롱(Parlong) 일대에 정착했다. 그들은 점차 꼬깡의 화인들이 쓰는 방언을 말하며 샨 주와 윈난성을 왕래하면서 대상(隊商)무역에 종사했다(Pan 1998: 141).

여기서 미얀마 동북부의 육로화인의 한 중요한 그룹인 소위 ‘꼬깡 화인’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다. 윈난에 접한 미얀마 동북부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꼬깡은 오래 전부터 윈난과 미얀마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꼬깡은 19세기 말까지 중국 땅이었지만, 지리적 위치와 지형적 조건으로 중국의 행정적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반독립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과의 육로 무역에 관심을 갖게 된 영국은 1897년 2월 중국과의 협정을 통해 꼬깡을 영국령 버마에 합병했다. 당시 꼬깡은 중국과 미얀마간 차 및 아편 무역의 중개 지역이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중국어를 구사하고 나름대로 강한 중국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윈난 중국인들로서 스스로를 “꼬깡인” 혹은 “꼬깡 중국인”으로 부른다. 현재 꼬깡 화인들 중에는 마약거래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다(Pan 1998: 141).

19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화인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버고(Bago) 및 양곤(Yangon) 일대는 1852-53년 제2차 영국-버마전

쟁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이 전쟁으로 하부 미얀마를 식민화한 영국은 델타 지방에서의 농업과 산업에 투입될 노동력을 외부로부터,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방침을 세웠다. 중국보다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선호되어, 대규모의 인력 수입은 인도에서 이루어졌다. 인도로부터 1830년대에 인력이 처음으로 미얀마로 수입되기 시작한 이래, 1872년이 되면 인도인 인구는 14만 명으로 당시 미얀마 총인구의 약 5%에 달했고 1931년이 되면 100만 명 이상이 되어 총인구의 7%를 점하게 되었다. 그에 비해 화인 인구는 인도인의 약 5분의 1에 불과했다(Bless 1990: 30-31).

마이클 아다스(Adas 1974: 83-84)는 식민 시대 미얀마에 화인들이 인도인들에 비해 적었던 원인으로, 식민 당국의 상기한 인력수입 정책 외에도 미얀마가 중국 동남부 연안 지방에서 배편으로 오기에는 너무 멀었다는 점, 특히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당시 중국과 미얀마 간 정기 운항하는 증기 여객선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미얀마의 화인사회가 혈연 혹은 지연적인 연고(緣故)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을 미얀마로 끌어들이기 만큼 경제적, 정치적으로 충분히 강력한 매력 있는 집단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든다. 위의 요인 중 미얀마와 중국 동남부 연안 지방간의 원거리와 해상교통의 불편함은 식민 시대 미얀마의 화인들이 일시 체류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와는 달리 대개는 장기 체류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의 배경이 되었다(Bless 1990: 58).

그러나 미얀마로 이주해 들어온 중국인들도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미 1850년대 중엽이 되면, 하부 미얀마의 외국인은 거의 모두 인도인과 화인들이었고, 이들은 주로 양곤과 삐뻬잉(Pathein)에 살고 있었다(Adas 1974: 20). 1872년경이 되면 양곤에만 약 3,200명의 화인이 있었다(賀聖達 1993: 343). 그리고 1901년에 되면 하부 미얀마의 화인 인구는 34,400명에 달했다(Adas 1974: 83-84). 미얀마의

화인 인구의 수치는 20세기 이후 보다 분명해진다. 식민 정부가 매 10년마다 시행한 인구조사의 기록에 따르면, 미얀마의 화인 인구는 1911년에 122,000명, 1921년에는 149,000명, 1931년에는 193,594명, 1941년에는 240,056명이었다(Bless 1990: 58). 이 중 1931년 인구통계는 상세한 부분들에까지 그 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 화인사회의 여러 측면을 보여준다. 193,594명은 그 해 미얀마 총인구 14,647,497명의 1.32%에 해당한다. 이들 화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산 주에 약 6만 명으로 산 주 인구의 4.3%를 점했다. 나머지 화인들은 하부 미얀마에 거주했는데, 특히 양곤의 경우 30,626명으로 도시 전체 인구 400,415명의 약 8%에 달했다.⁴⁾ 산 주의 화인들은 주로 윈난성 출신인 데 비해, 나머지는 대부분 푸젠(福建)성이나 광둥(廣東)성 출신이었다(Bless 1990: 35-39, 58).

2. 화인들의 경제적 활동

많은 중국인들이 특히 하부의 델타 지역으로 이주한 것은 델타 지역에서의 벼생산 증대를 꾀한 영국의 식민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식민 당국의 농업정책에 따라 1856-57년만 하더라도 70-80만 에이커인 델타 지역의 경작면적은 1871-72년에는 1,146,000에이커로, 1930년대 중엽이 되면 무려 8,702,000에이커로 확대되었다. 델타 지역에서의 이러한 경작지 확대와 쌀 생산의 급격한 증대의 가능성은 북쪽으로는 쉐보(Shwebo)와 만덜레(Mandalay)로부터 남쪽으로는 떠예(Thayek)와 뽀머나(Pyinmana)에 이르는 상부 미얀마⁵⁾의 이른

4) 양곤의 화인 인구는 1941년에는 36,556명으로 늘었다. 이 중 22,759명은 남자, 13,797명은 여자로 집계되었다(Andrus 1953: 36).

5) '상부 미얀마(Upper Burma)' 역시 영국인들이 도입한 개념으로, 1886년 전까지는 당시 독립적인 꾀바웅(Konbaung) 왕조가 다스리던 미얀마 북부의 영역을 가리켰고, 그 이후에는 이른 바 미얀마 본토(Burma proper)의 머웨(Magway), 만덜레, 저가잉

바 건조 지역(Dry Zone)으로부터 술한 버마인 농민들을 하부 미얀마로 끌어들이었다(Adas 1974: 22, 41-44). 1852년만 하더라도 100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델타 지역의 인구는 1901년이 되면 400만 명이 상으로 늘어났다. 162,000톤이었던 하부 미얀마의 1855년도 쌀 수출량은 1905-06년에는 200만 톤으로 증가했다(Adas 1974: 58).

인구가 급증하고 쌀 생산과 수출이 활발히 일어나는 하부 미얀마에서 화인들 중에는 인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쌀 유통과 관련된 사업에서 중간상인으로 활동한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정미소 혹은 상점을 운영하거나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면서 대개는 동시에 쌀장사를 했다. 그들은 미얀마어로 ‘저바베(sabape)’라고 부르는 선도입매 방식에 따라 6월경에 대리인을 보내어 12월이나 1월에 납품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농민들로부터 쌀을 미리 샀다(Andrus 1953: 200). 그들 중에는 1920년대에 델타 지역 특히 양곤 근처의 마을들에서 상당한 토지를 축적하여 지주가 된 자도 있었다(Adas 1974: 117-118, 172).

193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화인들의 41%가 상업에 종사했고 목수나 철공 및 피혁 등의 수공업으로 생계를 버는 자도 38%나 되었다. 그밖에 숙련노동자가 9%, 사무직에 종사하는 자가 5%를 차지했다(Purcell 1965: 45). 화인들의 생계활동이 상업과 수공업에 집중된 것은 당시 미얀마 사회에서의 많은 인구이동과 활발한 경기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식민 시대 화인들의 중요한 경제적 활동 가운데 하나는 전통 왕국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산업이었다. 북부 지역에서의 은광 등 광산에서뿐만 아니라, 남부의 여러 지역의 광산에서도 화인들이 중요한 노동력을 형성했다. 떠웨이(Dawei)의 주석 광산과 떠닝파이(Tanintharyi)의 주석 및 텅스텐 광산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북부

(Sagaing) 주의 영역을 가리켰다(Bečka 1995: 210).

지역 광산업의 화인들이 주로 윈난 출신의 육로화인들이었던 것에 비해, 남부 지역의 경우는 해로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1년경 미얀마의 광산업 노동자의 23.6%가 화인이었다(Andrus 1953: 36; Purcell 1965: 46).

화인들의 경제적 활동은 비록 명확하지는 않지만 방언집단에 따른 분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었다. 예컨대 광동성 출신 중에는 목수, 노동자, 농민 등이 많았고, 푸젠성 출신은 상업, 금융업, 중개업 등에서 강했다. 흥미로운 것은 미얀마어에 원래는 “짧은 소매”를 뜻하는 “렛또(letto)”란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전와되어 광둥인에 대한 별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와 비슷하게 “긴 소매”를 뜻하는 “렛셰(letshei)”는 푸젠인에 대한 별칭이 되었다(Myra Than 1997: 117; 陳孺性 1962: 422, 427).⁶⁾

20세기 전환기에는 제법 큰 규모의 화인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 일부는 도정업과 제재업 등 산업에 투자되었다. 식민 시대 미얀마의 대표적인 화인 사업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후웬후(胡文虎)는 자신의 약방에서 개발한 호패만금유(虎牌萬金油)라는 약으로 큰 돈을 벌었다(賀聖達 1993: 345). 특히 쌀장사와 연결된 도정업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인 자본의 주요 투자대상이었다. 1936년에 미얀마에 총 663개의 정미소가 있었는데, 그 중 101개가 화인 소유였다(賀聖達 1993: 344). 그러나 미얀마에서의 도정업을 포함한 쌀장사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와는 달리 화인들이 아니라 인도인들에 의해 지배되었다. 식민 시대 화인들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얀마의 상업 및 산업에서 인도인들에 대해 전반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다.

6) ‘렛또’와 ‘렛셰’의 구분은 광둥인 여자들과 푸젠인 여자들의 전통적인 복식문화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설명도 있다(East Asia Analytical Unit 1995: 62).

<표> 1895-1930년 주요직업 분야의 종족별 점유율(%) 비교

직업	연도	영국인		인도인		화인		버마인		기타	
		양곤	지방도시	양곤	지방도시	양곤	지방도시	양곤	지방도시	양곤	지방도시
상업	1895	23.1	6.8	47.1	25.5	19.9	9.4	9.9	56.8	0.0	1.6
	1930	9.7	9.7	57.8	37.5	19.7	16.1	7.9	34.7	4.9	2.0
제조업	1895	42.9	50.0	28.6	50.0	28.5	0.0	0.0	0.0	0.0	0.0
	1930	18.8	33.4	23.8	33.4	10.0	5.1	16.2	15.3	31.2	34.4
중개업	1895	7.8	0.0	23.4	0.0	26.6	5.1	37.5	82.1	4.7	0.0
	1930	20.1	3.5	48.4	3.5	11.8	42.8	6.6	47.6	13.1	2.6
서비스	1895	86.9	46.7	7.3	40.9	5.2	1.5	0.6	10.9	0.0	0.0
	1930	37.1	11.6	28.9	24.0	6.3	4.3	14.8	35.6	12.9	24.5
도정업	1895	75.0	0.0	0.0	0.0	20.0	0.0	5.0	100.0	0.0	0.0
체재업	1930	19.4	7.5	34.9	11.7	22.3	10.0	11.7	65.8	11.7	5.0
무역	1930	29.8	15.0	52.8	40.0	8.6	15.0	2.5	15.0	6.3	15.0

출처: Mya Than(1997: 123-124)

화인들은 19세기 중엽 하부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되기 전까지 미얀마의 수출 및 수입 무역에서 누리던 지배적인 지위도 영국 식민 체제 수립 이후 인도인들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인도인들이 무역에서 강세였던 이유의 하나는 식민 시대 미얀마와 인도간 무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총수출에서 인도에 대한 수출은 1868-69년에 25.1%였지만, 1897-98년에는 44.9%, 1920-21년에는 51.6%, 1939-40이 되면 60.9%를 차지했다. 총수입에서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1868-69년부터 1939-40년까지 40%에서 55%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Khin Maung Kyi 1997: 151-153).

식민 시대 미얀마의 상업 및 산업에서 인도인들의 지배적인 위상은 1901년경 수도 양곤의 인구의 51%가 인도인이었다는 사실에서 암시되어 있다(Adas 1974: 99). 그러나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그러한 지배적인 경제적 위상 때문에 버마인들에게 갈수록 혐오와 적대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에 반해 화인들은 버마인들로부터 종종 “빠우

포(pauk paw)” 즉 “동포”라고 불릴 정도로 버마인들에게 비교적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화인들이 ‘빠우포’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영국 식민 체제에서 경제적 혜택을 누린 이방인들에 대한 버마인들의 적대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식민 시대 화인들 중에도 그 착취의 규모가 인도인들에 비해 적었을 뿐이지 인도인들 특히 체띠아(Chettians)처럼 고리대금업 등을 통해 버마인들을 착취하는 자들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화인들이 버마인들에게 “곱게” 비치었던 것은 인도인들이 버마인들에게 너무 “땀게” 보였다는 점으로부터 상대적인 이익을 본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화인들이 식민 시대에 어쨌든 인도인들에 비해 버마인들에게 더욱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1930년 말에 하부 미얀마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퍼진 사야산(Saya San) 반란의 과정에서 입증되었다. 델타 지역에서 화인들이 십수명 살해당하고 가게들이 약탈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식민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농민들의 주 공격대상은 식민지 관료들과 특히 인도인 체띠아들이었다(Adas 1974: 204).

식민 시대 북부 미얀마에서의 화인들의 경제적 활동은 남부 미얀마에서의 상황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이전에 비해 퇴보를 겪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미얀마-윈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면의 거래가 수출상품으로서의 그 가치를 중시한 미얀마 왕실 정부에 의해 1854년부터 독점되었다. 이에 대해 1852-53년 간의 제2차 영국-버마전쟁 후 영국 사절단의 비서로 미얀마를 방문한 헨리 윌(Yule 1968: 144)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왕은 면과 몇몇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미얀마의 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면모이다. 과거에 아와(Ava)의 왕들과 대신들은 무역과 상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경멸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버고의 조세가 상실되

자 정부는 기발한 전환을 취하게 된 것이다. [중략] 면을 사고자 하는 상인들은 왕궁의 궁내부(宮內府)인 ‘브예다이’⁷⁾에 돈을 지불하고 상당량의 면에 대한 환어음을 받는다.

이 기록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미얀마 정부가 면의 거래를 독점한 것은 제2차 영국-버마전쟁으로 델타 지방을 영국에게 빼앗김으로써 특히 버고 지방으로부터의 조세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면 거래의 독점 조치로 어와 즉 인와(Inwa)와 어머니뿌라(Amarapura) 일대의 화상(華商)들이 많은 손해를 보았다.

19세기 중엽 이후 북부 미얀마에서의 화인들의 경제적 활동이 침체하게 된 다른 중요한 배경은 판타이 반란이었다. 1870년대 초에 미얀마를 방문한 영국인 프랭크 빈센트(Vincent 1873: 76-77)의 다음의 기록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버마와 서부 중국간의 옛 교역 루트의 관문은 버모(Bhamo)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20년간 원난(중국) 지방에서의 반란으로 닫혀 있다. 판타이라고 불리는 무슬림 중국인 다수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 중국 당국과 군대를 패퇴시키고 다이리 부(府)에 수도와 ‘제1 술탄만’이라고 칭하는 그들의 왕의 궁전을 둔 독립왕국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판타이 정부가 중국 황제에 의해 기정사실로 인정되고 질서와 법이 회복될 때까지는 실크, 면직의 류, 차, 질그릇 그리고 장식품 등을 실은 고래(古來)의 대상(隊商)이 다시 버모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반란 기간 원난과 미얀마 북부에서의 사회적 혼란으로 특히 면 무역과 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1873년에 반란이 종식된 후 버모와 만덜레 등지에서는 화인들의 상업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1886년에 미얀마 전체가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수년간 북부 국경 지대에서의 산적 집단들의 폭동으로 인한 혼란으

7) 율은 ‘Bya-deit’라고 표기하지만, 정확하게는 ‘byedaik’ 혹은 ‘byetaik’이다((Bečka 1995: 56-57).

로 미얀마-원난 육로무역은 쇠퇴하게 되었다(Purcell 1965: 60-66).

미얀마-원난 육로무역이 쇠퇴한 또 다른 원인은 1890년대 중국에서의 정치적 및 사회적 혼란이었다. 이 요인은 이미 해상무역에 치중된 영국 식민 정부의 무역정책에 편승하여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미얀마의 화상들로 하여금 육로무역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다(Thant Myint-U 2002: 225).

Ⅲ. 국민국가 형성 및 버마식 사회주의 시기(1948-1988년)

1. 인구학적 변화와 발전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수년간 공산주의자들과 소수민족들 특히 카렌족(Karen)의 반란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었다. 미얀마 정부는 독립 이후 버마인 중심의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했으며 1952년부터 시행된 불교적 가치관을 그 바탕으로 둔 계획경제 프로그램인 삐도다(Pyidawdha)⁸⁾ 정책에서건 네 윈 군부 독재체제하(1962-88)의 “버마식 사회주의”에서건 사회주의적 노선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펼쳤다. 40년에 걸친 이 기간 미얀마의 화인사회는 부침을 경험했다.

야 탕(Myat Than 1997: 118)은 1953년에 30만 명(총 인구 중 1.6%)이었던 미얀마의 화인 인구가 1961년에는 35만 명(1.6%)으로 늘었다가 1973년에는 22만7천 명(0.8%) 그리고 1983년에는 23만4천 명

8) ‘행복한 나라’를 의미하는 ‘삐도다’ 정책은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그 골자는 개개인이 자신의 물질과 노동력을 자발적으로 헌납하고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의 복지와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Storz 1967: 104). 불교적 가르침에 기반을 둔 이 정책은 종종 “불교 사회주의”라고도 칭해진다.

(0.6%)으로 줄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특히 1980년대까지 계속된 것으로 제시된 화인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40년대 초 약 24만 명이었던 미얀마 화인은 1942-45년 일본의 미얀마 점령 기간 약 14,000명이 미얀마를 떠나는 등 감소했다가 전쟁 후 다시 중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Purcell 1965: 73). 1953년까지 30만 명으로 증가한 것은 1947년경부터 확인되기 시작한 원난에서 미얀마 북부로의 많은 중국인들의 이주와 특히 1949년 중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승리 이후 국민당원들을 포함한 원난 지방의 중국인들의 미얀마로의 대규모 망명 내지는 이동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Purcell 1965: 74; Mya Than 1997: 118). 미얀마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58년에 양국간 합법적 이유 없는 국경 통과를 금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조치는 중국 측의 관점에서는 당시 미얀마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던 국민당 군대가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와 공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나아가서는 중국인들의 대규모적인 미얀마로의 밀입국을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 전통적인 국경 무역의 침체를 가져왔다(Trager 1964: 30-31).

화인 인구는 1960년대 초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첫째는 1962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국유화 정책으로 전통적으로 미얀마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경제가 침체되었다.⁹⁾ 특히 1964년에 도입된 농산물 공출(供出)제도는 쌀 유통을 지배해 온 인도인과 화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 1989:

9) 1인당 국민소득은 1964/65년의 350달러에서 1965/66년에는 315달러, 그 이듬해에는 313달러로 감소했다(Trager 1968: 111).

82-89). 특히 인도계가 큰 타격을 받아, 1963년 이후 수년간 미얀마를 떠난 인도인 및 파키스탄인이 20만 내지 30만에 달했다(Myra Than 1997: 126; Pan 1998: 141-143). 화인들의 경우는 인도계 주민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미얀마를 떠난 화인들의 수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3년에 미얀마의 농촌 인구와 도시 인구에서 각각 2%와 9%를 점하던 인도인 및 파키스탄인들의 비율은 1973년이 되면 0.2%와 1.2%로 떨어졌다. 그에 비해 화인들은 1953년의 1%와 6%에서 1973년에는 0.2%와 1.4%로 낮아졌다(Myra Than 1997: 132).

둘째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들을 차별시하는 새로운 법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1974년의 헌법은 모두 미얀마 시민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만 국회의원이거나 각종 인민위원회의 위원들과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1982년에 제정된 미얀마 시민법은 부모가 모두 미얀마 시민이 아닌 자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여 기술, 경제 등 전문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같은 제반 조치들은 화인들의 귀화를 촉진하여 1980년대 중엽이 되면 화인들의 대다수는 미얀마 국적을 갖게 되었다(Myra Than 1997: 119, 135-136). 그래서 23만여 명이라는 1983년의 수치는 귀화한 화인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며, 실제 화인의 숫자는 그보다 더욱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 미얀마의 화인 인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치들이 제시되어 있다. 더들리 포스턴과 위메이위(Poston and Yu 1990: 486)는 1982년의 미얀마 화인을 70만 명으로 잡으며, 중국에서 편집된 한 화인 관련 서적은 1987년의 화인 수를 71만으로 본다(方雄普·謝成佳 1993: 237-238). 그러나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이 수치들은 귀화한 화인들을 포함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된다. 역시 근거가 애매모호한 타이완의 한 중국인

학자 루웨이린(盧偉林 1988: 53)은 1985년의 미얀마 화인을 60만 명으로 보는데, 자연적인 인구증가만을 고려하더라도 오히려 이 수치가 실제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 화인들의 경제적 활동

1948년 출범한 미얀마 독립정부는 버마인 중심의 민족주의적 정책을 실시하여, 화인과 인도인 등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는 일련의 법령들을 제정했다. 예컨대 1948년 미얀마국적법을 제정하여 비버마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 활동 등을 박탈했으며, 부동산양도제한법을 제정하여 비버마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양도를 금지했다(賀聖達 1993: 348). 그러나 화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민족주의적 정책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그것은 첫째 위의 조치들이 철저하게 시행되지 않았으며, 둘째 많은 화인들이 귀화하여 미얀마인으로서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셋째 인도인들이 독립 후 대규모로 미얀마로부터 빠져나갔고 그들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마지막 요인은 1948-1962년간 미얀마에서 화인들의 경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제고되었던 것의 결정적 이유였다(Prucell 1965: 78).

1950년대 후반 수입대체산업이 발달했다. 이때 대부분의 새로운 공장들은 버마인이나 귀화한 화인 혹은 화인들의 자본이었고, 인도인의 기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1962년경이 되면 사부문의 공업에서 화인 자본의 비율이 75%를 차지했다. 특히 도정업, 제재업 그리고 섬유, 기름, 합성수지, 과자, 담배, 통조림 등의 경공업에서 화인 자본의 생산 부분은 결정적이었다. 또한 상업 부문에서도 화인 자본의 점유율은 인도인들의 것을 앞지르는 등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다.

그밖에 독립 후 화인 2세 및 3세대 가운데 전문직과 행정직에 진출하는 자가 증가했다. 이것도 화인들이 인도인들이 떠난 공백을 메운 결과였다(賀聖達 1993: 348; Mya Than 1997: 125-132).

화인들의 경제적 활동은 1962년 이후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 해 3월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버마식 사회주의”의 국가 경제발전 및 독립을 위한 청사진에 따라 주요 산업들을 국유화하는 등 미얀마 내의 외국인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착수했다. 군부 정권은 예컨대 1962년 6월에 한 신발공장에서 일하던 200명의 화인 공원들을 내쫓았다. 이유는 버마인들도 이제는 신발공장을 운영할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다(Holmes 1967: 188-189). 국유화 정책은 1963년 초부터 더욱 급진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해에 기업국유화법이 제정되었고, 1964년부터는 거의 모든 도·소매업, 수출입업, 제조업, 금융업이 국유화되었다. 1965년까지 총 15,000개의 사업체가 국유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인 소유의 공장들과 상점들이 정부 소유로 넘어가는 등, 화인 자본이 큰 피해를 입었다(賀聖達 1993: 349; Mya Than 1997: 126).

1967년에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호적으로 흐르던 미얀마와 중국간 외교적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이것은 미얀마 화인들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활동의 침체를 심화시켰다. 이 해 4월에 버마공산당(CPB)이 분열된 후 그 주요 멤버들이 미얀마 정부에 투항함으로써 미얀마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자, 중국 정부는 네 윈 정부의 노선을 강력히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양국간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동년 6월말부터 7월초 사이에 양곤에서 반(反)화인 폭동이 발생했다. 그 해 6월 22일 양곤의 학교 두 군데에서 당시 중국에서의 문화대혁명의 이념에 고취된 화인 학생들의 마오쩌둥 배지 착용을 둘러싸고 이들과 학교측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그 다음 날부터 버마인들 사이에서 팽배해진 반중국 및 반화인 분위기

가운데 화인 학교들과 심지어 중국대사관이 버마인들의 공격을 받았고, 급기야 대사관 직원 한 명이 죽었다. 7월까지 지속된 폭동은 양곤 전체에 번져 수십 명의 화인이 목숨을 잃었다. 미얀마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반중국적인 시위가 계속 되었는데, 정부가 배후에서 시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인다(Badgley 1967: 753-755; Trager 1968: 112-114). 반화인 폭동으로 많은 화인 상점들과 사업체들이 재산의 손실을 입었다. 또 그 전까지 6개였던 화인 상공회의소들은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되었다(East Asia Analytical Unit 1995: 62-63).

화인들의 경제적 활동은 1970년대 이후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었다. “버마식 사회주의”에 입각한 경제가 1970년대 초까지 극도로 침체하자, 네 윈 정부는 1973년에 제조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1970년대에 들어서서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네 윈 정부는 1976년 말에는 국영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 자유 가격제를 확대했으며, 그 이듬해에는 “사영기업권리법(私營企業權利法)”을 발표했다(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 1989: 112-113; 賀聖達 1993: 349). 이같은 조치들에 힘입어 미얀마의 GDP 성장률은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연평균 6-7%를 기록했다(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 1989: 113-116). 이 기간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통제의 완화는 특히 서비스업과 가내공업 분야에서 화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예컨대 당시 양곤의 큰 시장들에서 화인이 주인인 가게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Myra Than 1997: 126).

이 시기 활성화되기 시작한 화인들의 경제활동은 1984년 만달레에서 나타났다. 만달레 시내는 1981년과 1984년 두 번에 걸쳐 발생한 대화재로 상당 부분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주택과 상가들을 재건할 재정적인 힘이 부족한 버마인 주민들과 사업가들은 결국 자신

들의 땅을 화인들에게 팔았다. 그 이후 이들은 점차 도시의 외곽 지역으로 밀려났으며, 시내의 상업가는 화인들에 의해 지배되었다(Myra Maung 1994: 453).

IV. 1988년 이후 개방과 화인사회의 활성화

1. 인구학적 변화와 발전

미얀마 화인사회의 규모는 1988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긴밀해진 미얀마-중국 관계가 놓여 있다. 1988년 7월에 네 윈의 사임 후, 9월에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SLORC)라는 명칭의 통치기구를 세웠다. SLORC은 네 윈의 사회주의 경제를 개방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증대시켰다. 시킨즈(Seekins 1997: 526)는 미얀마의 경제가 그 전과 마찬가지로 개방 후에도 군부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특히 1988년 이후의 시장경제 개방정책이 미얀마의 산업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군부 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것이고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의 진전도 미얀마 군부 정권의 연장에 기여해 왔다고 비판한다.¹⁰⁾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1988년 이후 미얀마의 경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변화, 특히 중국과의 교역의 대폭적인 증대가 미얀마 화인의 숫자와 경제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까지 미얀마의 군부 엘리트들은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거부하

10) 이와 비슷한 비판은 Myra Maung(1997: 503)과 Clark(1999: 785-786)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고 있다. 그들이 서방의 비판에 귀를 막고 독재체제를 고집할 수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미얀마와 중국간의 특별한 관계이다. 그 특별한 관계란 미얀마의 군부 정권이 중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것을 미얀마의 국내 정치에 간섭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압박에 대한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중국은 미얀마의 군부 정권이 필요로 하는 무기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서방의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는 미얀마의 대외교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있다. 이웃국가들의 국내 정치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 중국으로서는 미얀마와의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중국의 상품과 무기 판매를 위한 좋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 영향력을 미얀마는 물론 인도양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Lintner 1997b: 16; Win 2004).

미얀마 정부는 1988년 10월 초에 미얀마-중국 무역의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12월에는 양국간 국경 교역을 합법화했다. 그 이듬해 11월에는 “미얀마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었다(Steinberg 1990: 588, 594; Mya Maung 1997: 504). 1992년에는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은행의 설립이 허용되는 일이 일어났다(Vatikiotis 1995: 49). 무역 합법화 이후 양국간 교역량은 크게 늘어, 예컨대 1980년대 중엽만 하더라도 연간 1,500만US\$에 불과했던 윈난성과 미얀마간의 교역량은 1990년대 중엽이 되면 8억US\$로 증가했다(Seekins 1997: 530). 방콕의 *The Nation* (1995.05.26)에 따르면, 1994-95년경 양국간 전체 교역량은 12억 US\$에 달했는데, 이것은 미얀마 총 무역량의 60%에 해당되었다. “미얀마의 것보다 질이 좋고 일본 것보다 값이 싼” 중국산 물품은 여러 루트 특히 윈난성의 쿤밍(昆明)-샤관(下關)-루이리(瑞麗)에서 미얀마의 버모-만달레-양곤으로 연결되는 소위 ‘버마 로드(Burma Road)’를 통해 미얀마 시장으로 대량 유입되었다(Steinberg 1990:

594; Lintner 1997b: 17). 이러한 물자 외에 무기 교역도 대규모로 일어나, 1992년 이래 미얀마로 수입된 중국산 무기와 안보 장비가 30억 US\$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Win 2004).

양국간의 이러한 교역은 많은 중국인들을 미얀마로 끌어들였다. 개방 이후 유입된 화인들은 거의 모두 윈난성을 통해 들어온 육로화인들로, 이들은 ‘버마 로드’ 상에 있는 미얀마의 주요 도시들 특히 만달레에 집중적으로 이주해 들어왔다. 그리하여 1992년에 만달레에 약 23,000의 중국인이 새로 정착했으며, 그 이듬해에는 그 수가 27,0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다(Seekins 1997: 530). 미얀마로 유입된 중국인들은 윈난성 출신뿐만 아니라 타 지방 출신들도 많았다. 예컨대 1990년대 후반 홍수로 가산을 잃은 남부 중국의 많은 농민들이 미얀마로 이주해 들어왔는데, 그 수가 수십만 내지 100만 이상이었다고 본다(Tatlow 1999).

중국인들은 상당수가 이미 국경을 넘어올 때 미얀마 주민등록증을 소유한 “미얀마 국민”으로 들어왔다. 이들이 미얀마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게 된 것은 북부 미얀마에서 버마인이 한 사람 죽으면 그의 사망이 미얀마 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채 그의 주민등록증이 브로커의 손을 거쳐 중국인에게 팔리는 방식으로 종종 이루어졌다(Seekins 1997: 530-531). 혹은 중국인들이 만달레를 포함한 북부 미얀마의 소도시에서 일단 들어왔다가 사망한 버마인의 주민등록증을 현지 암시장에서 구입하여 하루아침에 “미얀마 국민”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다(Myra Maung 1994: 453).

1993년의 한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만달레의 인구는 653,000명이고, 그 중 외국인인 2,670명이었다. 그러나 위의 수치에서 미얀마 국적을 가진 자들 중에는 오래 전에 미얀마로 귀화한 화인들 외에도 그 이전 수년간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미얀마 국민”이 된 ‘신(新) 화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1993년경 만달레의 인

구는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Myra Maung 1994: 453). 이것은 당시 미얀마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생활하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도 매우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미얀마에 대한 1990년대 말의 한 보고에 의하면, 이 시점의 만달레 화인의 인구 비율은 30%에 달했다(Tatlow 1999).

장보자 윈(Win 2004)이 “중부 미얀마의 만달레와 여타 지역에서 많은 화인 인구를 목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듯이, 1980년대 말 이후 원난성에서 미얀마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만달레 뿐만 아니라 점차 양곤 등 다른 도시들로도 진출했을 것이다. 이들의 미얀마 유입을 통한 미얀마 화인 인구의 수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교통상부 산하의 동아시아분석팀(East Asia Analytical Unit 1995: 61)은 1990년대 중엽 미얀마 화인의 인구 비율을 15-20%로 제시하는데, 이 수치는 그것이 아무리 “광범위한 중국계(largely Chinese descent)”를 포함한 것이라 할 지라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마 탕(Myra Than 1997: 119)은 비슷한 시기 화인 인구의 비율을 2-3%로, 즉 숫자로 환산하면 100만 내지 150만 명으로 추측하는데, 이 수치가 약 60만으로 추정된 1980년대 중엽의 화인 수와 그 이후 화인의 급증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것 같다. 미국 오하이오대학교의 한 연구소는 2002년경 미얀마 화인 수를 200만 명으로 제시한다(Zheng Liren and Chinhong Lim Chang 2002). 미얀마 총인구의 4%에 해당되는 이 수치는 비록 그 근거가 불확실하나 위에서 언급한 1990년대 후반 중국인들의 미얀마 쇄도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화인들의 경제적 활동

1988년 이후 미얀마 경제에서 화인들의 활발해진 활동은 무엇보

다도 상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나타난다. 상업은 주로 소매업, 특히 잡화 매매가 대부분이다. 화인들이 전통적으로 강한 서비스업 분야 중 하나는 요식업이다. 양곤의 경우 요식업은 대부분 푸젠성의 푸저우(福州) 출신 화인들에게 장악되어 있어, “푸저우 식당세계(福州餐廳世界)”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方雄普·謝成佳 1993: 238). 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의 유입은 요식업과 숙박업과 유흥업의 번성을 가져왔다. 호텔업은 개방 이후 가장 번창한 사업 가운데 하나로, 그것은 1988년에 39개(1,240실)에 불과했던 미얀마의 호텔 수가 1999년 초가 되면 523개(14,714실)로 급증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Südostasien aktuell 1999: 112). 호텔업의 상당 부분은 미얀마를 “아시아의 잠자는 미녀(Asia’s Sleeping Beauty)”라고 부를 정도로 관광지로서의 미얀마의 가능성을 높이 본 해외 화인 사업가들의 투자에 의한 것이었다. 예컨대 1996년에 오픈한 양곤의 트레이더즈 호텔(Traders Hotel)은 말레이시아의 화인 재벌인 로버트 쿵(Robert Kuok)의 샹그릴라(Shangri-La) 호텔 그룹이 투자한 것이었다(Bangkok Post 94/11/13).

1989년 말 외국인 투자법의 도입 이래 미얀마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그 출처가 대부분 화인들이거나 그 운용이 화인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다. 해외 화인 사업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는 대개 미얀마 현지 화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1962년 네 윈의 독재체제 이후 다른 나라로 이주한 미얀마 출신 화인 사업가들이 종종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다. 예컨대 미얀마 출신 싱가포르 화인인 타오(S. P. Tao)는 양곤에 호텔을 짓는 사업에 컨소시엄의 한 파트너로서 참가했다. 미얀마 화인들과 해외 화인들간의 사업상 협력은 종종 방업집단간 구분에 따라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양곤의 푸젠인 사업가들은 역시 푸젠인들이 다수를 이루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의 페낭(Penang)의 화인들과 합작하는 경

향이 강하다. 그에 비해 광둥인 사업가들은 일반적으로 홍콩과 유대를 갖는다(East Asia Analytical Unit 1995: 64, 184-185).

네 윈 시대 위축되었던 미얀마 화인들의 공업 및 제조업 부문에서의 활동은 개방 이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방직업, 화공업, 기계 제작업 그리고 도정업을 포함한 식품가공업 등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공업은 그러나 군부체제하에서 대규모 공업이 여전히 국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 가내공업의 형태를 띠었다. 그들의 공업 부문 활동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사업이 주로 양곤을 비롯한 남부 미얀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남부 해안 지방 특히 남단의 떠닝따이 주에서는 해운업, 조선업, 어업 등도 화인들의 주요 사업 분야에 속한다(方雄普·謝成佳 1993: 238; 賀聖達 1993: 352).

개방 이후 화인들의 활발해진 상업 활동은 무엇보다도 만달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전까지는 비교적 소극적인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달레의 방언 집단별 화인협회들은 최근 현지 화인들과 중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화인 상공회의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에서의 화인들의 경기 활성화를 보여주기에도 충분하다(East Asia Analytical Unit 1995: 63). 중국에서 유입된 술한 화인들과 범람하는 중국산 물품들로 이 도시는 변성하는 큰 “시장”이 되었다. 1980년대 말 이후 많은 고층빌딩들이 세워지고 상점과 호텔, 레스토랑 등 신흥 서비스업 업소들이 들어섰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 기존의 화인들이나 원난을 통해 들어온 ‘신화인’들이 지배하고 있다. 미얀마 화인 우 쯔 탕(U Kyaw Than)이 1992년에 지은 실버클라우드(Silver Cloud) 호텔도 그 한 예이다(Myra Maung 1994: 448, 457).

만달레의 신흥 사업가들은 대부분 화인들이고, 이들이 운영하는 호텔, 레스토랑, 유흥업소 등은 중국, 타이완, 홍콩, 일본에서 오는 사업가나 관광객들, 특히 원난성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주요

고객을 이룬다. “차이나타운이 과거에는 80번가 일대였으나 지금은 시내 전체가 차이나타운이다. 중국인들이 도처에서 부동산을 사들였다”라는 한 버마인의 말은 만달레에서의 화인들의 최근 팽창된 활동이 어떤 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Tatlow 1999). 화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은 북부 미얀마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일어났다. 한 관찰자는 이 현상을 “만달레와 북부 미얀마의 중국 식민지화”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Myra Maung 1994: 455).

V. 결론

영국 식민 시대 인도인들에 대해 수적으로나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열세에 놓여 있었던 미얀마의 화인들은 독립 이후 특히 인도인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준 1960년대 초의 국유화 정책 실시 이후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그 변화에는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식민 시대 버마인들의 인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화인들에 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및 군사적 영향 그리고 화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들의 대량공세적이고 심지어 군림하는 듯한 경제적 활동으로 화인들은 이제 미얀마에서 점차 버마인들이 불신하고 나아가서는 혐오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이 문제에 대해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Seekins 1997: 530).

스타인버그(Steinberg 1990: 600)는 이미 1990년경에 미얀마에 중국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미얀마의 경제가 화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미얀마 사회에서 중국인 및 화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나타나고 버마인과 화인간에 종족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보

았다. 그의 예측은 수년 후에 적어도 만달레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마 마웅(Myra Maung 1994: 458)은 “대규모 화인 맹습(massive Chinese onslaught)”으로 만달레의 전통적인 미얀마 불교문화가 침식당하고 있으며, 만달레의 일반 시민은 물론 불교 승려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유감과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린트너(Lintner 1997a: 18-19)에 따르면, 1997년 봄에 만달레 소재 불교사원들의 주지스님들은 만달레에 너무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문제를 이 지역의 군사령관에게 거론했다고 한다.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갈수록 커가고 중국과의 교류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얀마에서의 화인의 수적인 규모와 그들의 경제적 힘이 앞으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이와 더불어 미얀마 사회로 동화되어 있거나 동화하려는 화인들의 수도 갈수록 적어질 것 같다. 1980년대 말 이후 화인사회의 활성화는 미얀마 화인들의 정체성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화인들은 미얀마의 독립 이후 실시된 제반 정책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 전반적으로 미얀마 사회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미얀마 화인들 사이에서 점차 중국적 정체성(“Chineseness”)이 부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버마인들의 정치·문화적 중심인 양곤을 위시한 남부의 지방들에 사는 화인들에게서보다는 최근 ‘신화인’들이 대거 형성된 만달레와 그 이북 지역의 화인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Myra Than 1997: 142; Pan 1998: 143).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버마인들의 화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전통적인 “빠우포”로부터 식민 시대 인도인들에 대한 것과 비슷한 적대적인 것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이다.

주제어: 빠우포, 육로화인, 해로화인, 신화인, 버마 로드

참고문헌

-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 편. 1989. 『버마 현대사 - 버마식 사회주의와 버마 민중 항쟁』. 서울: 소나무.
- Adas, Michael. 1974. *The Burma Delta: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on an Asian Rice Frontier, 1852-1941*.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Andrus, J. Russel. 1953. *Burmese Economic Life*. Second Printing.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adgley, John H. 1967. "Burma's China Crisis: The Choices Ahead." *Asian Survey* 7(11): 753-761.
- Bangkok Post. 1994. Bangkok. November 13.
- Bečka, Jan. 1995. *Historical Dictionary of Myanmar*. Metuchen: The Scarecrow Press.
- Bless, Roland. 1990. "*Divide et impera*"?: *Britische Minderheitenpolitik in Burma 1917-1948*. Stuttgart: Franz Steiner.
- Clark, Allen L. 1999. "Myanmar's Present Development and Future Options." *Asian Survey* 39(5): 772-791.
- Chen Yi-Sein. 1976. "The Chinese in Rangoon during the 18th and 19th Centuries." In *Papers on Asian History, Religion, Languages, Literature, Music Folklore, and Anthropology*. Ascona: Artibus Asia.
- East Asia Analytical Unit. 1995. *Overseas Chinese Business Networks in Asia*. Parke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
- Evans, Brian L. 1985. "The Panthay Mission of 1872 and its

- Legacies.”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6(1): 117-128.
- Holmes, Robert A. 1967. “Burmese Domestic Policy: The Politics of Burmanization.” *Asian Survey* 7(3): 188-197.
- Khin Maung Kyi. 1997. “Comments on ‘Ethnic Chinese in Myanmar and their Identity’.” In Leo Suryadinata(ed.). *Ethnic Chinese as Southeast Asians*. pp. 115-146.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Lintner, Bertil. 1997a. “Ethnic Scapegoa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10.
- Lintner, Bertil. 1997b. “Burma Road.”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6.
- Mya Maung. 1994. “On the Road to Mandalay: A Case Study of the Sinonization of Upper Burma.” *Asian Survey* 34(5): 447-459.
- Mya Maung. 1997. “Burma’s Economic Performance under Military Rule: An Assessment.” *Asian Survey* 37(6): 503-524.
- Mya Than. 1997. “Ethnic Chinese in Myanmar and their Identity.” In Leo Suryadinata(ed.). *Ethnic Chinese as Southeast Asians*. pp. 115-146.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Pan, Lynn(ed.). 1998. *The Encyclopedia of the Chinese Overseas*. Singapore: Landmark Books.
- Poston, Dudley L., Jr. and Mei-Yu Yu. 1990. “The Distribution of the Overseas Chinese in the Contemporary World.”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4(3): 480-508.

- Purcell, Victor. 1965.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eekins, Donald M. 1997. "Burma-China Relations: Playing with Fire." *Asian Survey* 37(6): 525-539.
- Steinberg, David I. 1990. "International Rivalries in Burma: The Rise of Economic Competition." *Asian Survey* 30(6): 587-601.
- Storz, Hans-Ulrich. 1967. *Birma: Land · Geschichte · Wirtschaft*.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Südostasien aktuell. 1999.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März.
- Tatlow, Dermot. 1999. "China's Shadow: A Growing Presence from Next Door Spurs a Rethink in Yangon." *Asiaweek*. May 28.
- Thant Myint-U. 2002. *The Making of Modern Burm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 Nation. 1995. Bangkok. May 26.
- Trager, Frank N. 1964. "Burma and China."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5(1): 29-61.
- Trager, Frank N. 1968. "Burma: 1967 - A Better Ending than Beginning." *Asian Survey* 8(2): 110-119.
- Vatikiotis, Michael. 1995. "Catching the Wav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ruary 16.
- Vincent, Frank, Jun. 1873. *The Land of the White Elephant: Sights and Scenes in South-Eastern Asia. A Personal Narrative of Travel and Adventure in Farther India Embracing the Countries of Burma, Siam, Cambodia,*

- and Cochin-China (1871-2)*. London: Sampson Low, Marston, Low, & Searle.
- Win, Kanbawza. 2004. "Big Brother Beijing blocks Yangon reform." <http://www.atimes.com>. May 12 (검색일: 2004.05.05).
- Yegar, Moshe. 1966. "The Panthay (Chinese Muslims) of Burma and Yunnan."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7(1): 73-85.
- Yule, Henry. 1968. *A Narrative of the Mission to the Court of Ava in 1855 together with the Journal of Arthur Phayre Envoy to the Court of Ava*.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Zheng Liren and Chinhong Lim Chang. 2002. "Distribution of the Overseas Chinese Population." http://www.library.ohiou.edu/subjects/shao/databases_popdis.htm (검색일: 2003.07.17).
- 盧偉林. 1988. 『緬甸華僑概況. 臺北』. 正中書局.
- 方雄普·謝成佳 編. 1993. 『華僑華人概況』.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 陳孺性 編. 1962. 『模範緬華大辭典』. 仰光: 集美印務公司.
- 賀聖達 編. 1993. 『當代緬甸』.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Abstract

Formation and Change of the Ethnic Chinese in Myanmar since the English Colonial Period

Cho, Hung-Guk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English colonial period the ethnic Chinese in Myanmar were inferior to the ethnic Indians in numbers and economic activities as well. The situation reversed after the country gained independence, especially since the nationalization policy of the Ne Win regime in early 1960s which struck a disastrous blow to the Indian community as a whole. Another important reason of the reversal is that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hostility of the Burmese toward the ethnic Indians was greater than that toward the ethnic Chinese. However, with the increase of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s of China on Myanmar, with the explosive growth of the ethnic Chinese population in Myanmar and their expansive economic activities since 1988, they have been gradually distrusted and even hated by the Burmese. With such a numerical strength and economic power continually increasing, their “Chineseness” seems to gradually revive. This is most evident in Mandalay, where recently a massive community of “new ethnic Chinese” has been

forming. If this situation keeps developing, the traditional “brother” image of the ethnic Chinese, ‘pauk paw,’ can be one day transformed into a hostile one once attached to the ethnic Indians.

Keywords: Pauk paw, Mountain Chinese, Maritime Chinese, New Ethnic Chinese, Burma Road